

SOCIETY

2025년 8월 18일 월요일

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추진
일본 시민단체 “피해자 존엄 회복”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가 광주시의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추진에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은 17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 고 이금주 회장의 강제동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지혜로운 결정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모임은 “일제강제동원시민역사관 건립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 피해자들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 소식이이다”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등 피해자들에게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온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고 이금주 회장의 강제동원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식민 지배 실상을 밝히고 기록해 세대를 넘어 계승하는 것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네트워크는 “역사관 건립을 통한 자료 정리, 전시 등은 강제동원 문제의 진상규명, 피해자의 존엄 회복, 기억 계승의 장이 될 것이고, 식민주의를 극복하고 인권과 평화를 실현해 국제 연대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독립군 후손으로서 자부심…대한민국 만세”

광주 고려인마을, 광복 80주년 봉오동 전투 재연
주민 400여명 참여…태극기우산·물총 들고 함성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80년 전 광복을 위해 앞장섰던 선조들의 함성이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독립투사 후손들의 목소리로 다시금 뜨겁게 울려 퍼졌다.

지난 15일 광주 고려인마을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함일정신과 독립운동의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역사를 이어가는 고려인마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재외동포청과 광산구가 공동 주최·주관하고 고려인마을이 협력했으며 광주지방보훈청은 고려인 동포 참가자들을 위한 기념 물품을 후원했다.

이날 오전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에는 우비를 차려입은 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문화관은 순식간에 고려인마을 주민, 광주 고교 역사동아리 학생, 시민 등 4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이곳을 찾은 이들의 손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극기 우산과 물총, 비누방울 장난감 등이 들려 있었다.

오전 10시 문화관을 나선 참가자들은 일본군 복장을 한 이들과 물총으로 전투를 벌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물총을 쏘며 200여m를 이동해 흥분도공원에 도착한 이들은 태극기 우산을 머리 위로 흔들며 큰 소리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독립 전쟁사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 봉오동전투를 재현한 거리 행진은 ‘그날’의 치열했던 전투를 후손들이 다시 느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만주 봉오동에서 독립군 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물리친 전투로, 흥범도·최진동 부대가 일본군 정규군을 대패시켜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킨 항일 무장독립운동사에 빛나는 전과 중 하나로 꼽힌다.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에서부터 흥범도공원까지 고려인마을을 항일 독립로를 따라 진행된 행진은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꿈을 꾸게 해 준 전투의 의미를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재연 행사 후에는 광복 80주년 기념을 악화가 펼쳐졌다.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은 ‘광복절 노래’ 등을 부르며 독립운동과 민족정신을 기렸고, 오케스트라는 8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곡을 합창했다.



광복 80주년인 15일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의 하나로 봉오동 전투를 재연하는 거리극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산구

또 아리랑가무단은 ‘고려아리랑’을 비롯한 노래와 춤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동포의 애환을 담아냈다.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독립운동가와 인생네컷’, ‘자기 태극기 키링만들기’, ‘태극기 무궁화 페이스페인팅’, ‘흥범도 장군 무드등 만들기’ 등 독립운동, 역사 문화 체험부스 등도 참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신조아 고려인마을 대표는 “마을 구 성원들이 연해주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독립군의 후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고려인의 역사·문화 등을 통해 후손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고려인과 주민들이 하나가 돼 즐기면

서, 흥범도 장군 동상을 보며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강제 이주 애환을 지닌 고려인의 후손이 모여 사는 광주 고려인마을은 해마다 삼일절과 광복절마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마을 행사를 이어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남구, 양림동 선교사 유적 ‘유네스코 등재’ 도전

오웬기념각·우일선 선교사 사택·수피아 홀 등 7곳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등 거쳐 2030년 최종 목표

광주 남구가 양림동 선교사 묘역과 유적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나선다.

17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유네스코 등재 대상은 오웬기념각과 우일선 선교사 사택, 선교사 묘역, 수피아 홀과 커티스메모리얼 홀, 윈스보로우 홀, 수피아여고 소강당 등 7곳이다.

양림동은 한국 선교역사의 대표적 상징지다. 의료 선교를 통한 결핵과 나병환자 치료는 양림동만 갖고 있는 차별화된 특징이다.

서양 문물 접목을 통해 인간 존중과 평등 세상을 열었던 중심지였고, 대부분 등록문화재나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돼 도심 속에서도 원형에 가깝게 보존 상태를 갖추고 있다.

광주 남구는 지난해 문화재청 우선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 연구용역을 마쳤다.

올해 6월에는 전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근대역사문화 유네스코 등재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했다. 참여 시·군은 청

주·광주·전주·김제·순천·목포·대구 남구 등이다.

협의회는 ‘청주→광주→전주→김제→광주→순천→목포→대구’로 이어지는 8

박 9일 국제 순례코스를 구성하고 있다.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선교유적연구회가 위탁 운영하며,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회장을 맡아 총괄하고 있다.

추진 예산은 8개 시·군이 각각 1000만 원씩 분담하고 있다. 등재 후 유지·관리 비용은 협의회를 통해 분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 잠정목록 등재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 실사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심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준비와 심사 과정을 거쳐 2030년 최종 등재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예루살렘 방문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성지순례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국제적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첫 개신교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우일선 선교사 사택



오웬기념각



수피아 홀

광주 RISE사업단 지역혁신 거버넌스 본격화

내달 3일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서 출범식 개최

광주 RISE사업단이 지역 혁신 거버넌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전남대학교는 오는 9월3일 오후 2시 민주마루에서 ‘지역·대학 동반성장 광주 RISE 비전 선포식’과 광주 RISE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7개 대학 RISE사업단과 광주RISE센터가 공동 주최하며, 광주시

장과 시교육감, 대학 총장, RISE사업단장, 시의원, 자치구청장, 지역혁신기관장, 기업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

이다. 각 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역·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의 중심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행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먼저 1부에서는 광주RISE 공동위원장인 전남대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광주시장과 시의회 관계자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어 17개 대학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전남대와 조선이공대 RISE사업단장이 비전선언문을 낭독한다.

이후에는 모든 RISE사업단장이 함께 하는 출범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특별강연이 마련돼 있으며, 단위과제별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고 향후 공동과제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간다.

이운성 전남대 RISE사업단장은 “이번 출범식을 통해 광주 RISE사업단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산업,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식산업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혁신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광주가 교육과 산업, 연구가 긴밀히 연결되는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사람과도시

크리고 자연환경 오늘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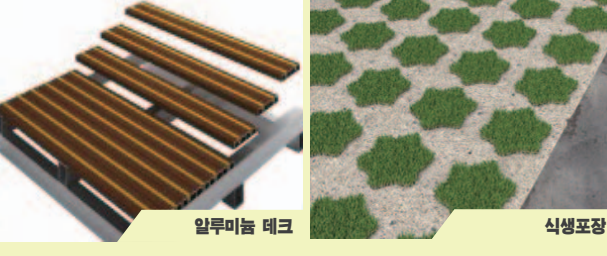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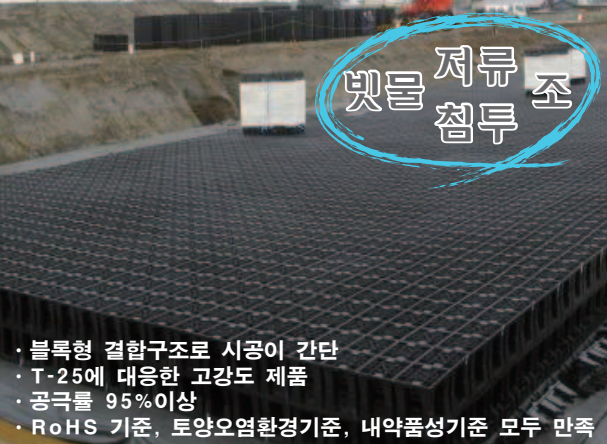
믿음 주고 사랑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부분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로드킬 디자인난간, 알루미늄 데크, 신축이음장치 교량점검로, 교량확장 외

환경사업부분

빗물저류 침투조, 식생수로, 비점오염저감 시설, 잔디식생포장공법, 우수분리장치 외



HANGUL (주)한길산업
www.hngroad.co.kr

본 사 1(광주) 전남 광평군 학교면 학교공단길 35 Tel.061)324-9123
사무소 2(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신단6번로 26 Tel.062)944-9123
지 사) 경기도 군포시 엘메스(US)로 172 한림유연타워10층 1015호 Tel.031)476-8504